

대세는 SUV·RV ... 디젤차 비중 50% 넘나



디젤 SUV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아차 '쏘렌토'(위)와 '카니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 차량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디젤을 연료로 활용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미니밴 등 레저용 차량(RV)의 판매량이 급증한 데다 수입 디젤 세단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시장에서 팔린 국산 및 수입 디젤 차량(상용 제외)은 총 14만9731대로 지난해 1분기보다 21.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분기 38.6%에서 올해 44.2%로 경종 뛰어올라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디젤 판매 비중은 2012년 연간 29.7%에서 2013년 35.7%를 기록한 뒤 지난해 40.7%를 나타내 처음으로 40% 벽을 넘어섰다.

디젤 엔진이 주류인 SUV 판매량이 통상 여름 휴가철이 낀 하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디젤 차량의 인기는 무엇보다 현대차의 투싼, 르노삼성의 QM3 등 SUV와 쏘렌토, 카니

1분기 15만대 판매... 21.6% ↑

전체 44.2% 차지 '역대 최고'

수입 디젤 세단 인기 영향도

발 등 미니밴의 판매 호조에 따른 것이다.

국내 완성차업계 1분기 판매량 가운데 이들 RV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또 수입 디젤 세단의 인기가 계속되고 국내 완성차업계도 디젤 세단의 라인업을 확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산 준대형 세단 가운데는 처음으로 그랜저 디젤을 출시했고 올해 1월에는 국산 중형 디젤 '더 뉴 i40'을 출시했다. 각 업체는 하반기에 주력 차량에 대한 디젤 모델을 잇따라 출시할 예정이어서 디젤차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쌍용차가 다음 달 티볼리 디젤 모델을

출시하는 데 이어 하반기에는 기아차가 SUV 볼륨 모델인 신형 스포티지를, 한국GM은 유로 6기준을 충족하는 트랙스 디젤 모델을 출시한다.

현대차는 하반기에 쏘나타 1.7 디젤 모델을 라인업에 추가할 예정이며 기아차는 오는 7월에 신형 K5 출시와 동시에 1.7 디젤 모델을 내놓는다.

수입차 시장에서는 이미 디젤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수입차 신규 판매량 가운데 디젤 모델 비중은 2012년에 50.9%를 기록해 절반을 넘어섰으며 올해 1분기에는 69.6%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유로5 디젤 신차 판매 금지가 앞두고 올 초에 할인 판매를 통해 재고를 처분하면서 디젤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레저용 차량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수입차 뿐 아니라 국내 디젤 세단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기차 충전방식 '국가표준' 정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 도입
충전기술 안정적 개발·운용 가능

국가나 제조사 별로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에 국가표준 도입이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직류(차데모)와 콤보(교류·직류 겸용) 방식의 전기차 충전용 커플러(연결장치)에 대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표준을 도입해 국가표준(KS-RIEC62196-3)으로 제정했다.

이로써 2012년 교류 방식 커플러에 대해 국가표준을 제정한 데 이어 현재 쓰이는 모든 전기차 충전 방식을 국가표준화하는 작업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국내외에서 생산된 모든 전기차 차종의 충전 기술을 안정적으로 개발·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충전에는 스마트그리드협회, 자동차공학회의 단계에서 정한 기준을 표준으로 사용해왔

다. 현행 전기차 충전 방식은 교류, 직류, 콤보 3가지가 있다.

교류 방식은 일반 가정이나 건물에서 쓰는 교류(AC) 전력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충전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충전 시간이 1~5시간 정도로 긴 편이다. 커플러가 5핀으로 된 AC 단상과 7핀으로 된 AC 3상 방식이 있으며 AC 단상은 충전 시간이 4~5시간, AC 3상은 1시간 정도다. 국내 시판된 전기차 가운데는 SM3가 AC 3상 방식을 쓰고 있다.

직류 방식은 충전 시간이 30분 내외로 짧지만 직류(DC) 전력을 쓰기 때문에 충전소에서 충전해야 한다. 콤보 방식은 교류와 직류 방식 장점을 함께 갖췄으며 레이, 쏘울, 스파크, i3 등이 채택하고 있다.

한편 충전 시스템에 대한 국가표준은 2002년(교류충전기)과 2011년(직류충전기) 제정됐으며, 직류충전기의 통신 부분에 대한 국가표준이 지난해 제정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프라이드



한국GM 아베오

뒤태 다른 '해치백' 모델 소형차 고객 늘다

기아차 프라이드·한국GM 아베오 등 2430대 팔려 2.4%P 증가

자동차 뒷모습이 둥글면서 실용적인 '해치백(hatchback)' 모델의 소형차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의 소형차 구매 트렌드가 유럽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현대차 엑센트와 기아차 프라이드, 한국GM 아베오 등 국산 소형차의 판매대수는 총 9304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치백 모델은 2430대가 팔렸다.

소형차의 해치백 모델 판매 비중은 26.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7%보다 2.4%포인트 늘었다. 특히 아베오의 해치백 판매비중은 지난해 38.

2%에서 50.5%로 크게 증가했다. 프라이드의 경우 올해 1월 45%, 2월 49%였던 해치백 모델 계약비율이 3월 51%로 절반을 넘어선 데 이어 4월에 54%로 집계돼 해치백과 '노치백(notchback)'의 비중이 역전됐다.

해치백이란 문을 위로 끌어올리는 잠수함의 출입구 '해치'에서 유래된 용어다. 외관상 둥글고, 뒷좌석 공간과 화물적재 공간이 합쳐져 있다. 반면에 승차 공간과 트렁크가 분리되어 층을 이루는 모양을 한 세단형 자동차 모델은 '노치백'이라고 한다. 한국 소비자들은 마치 '잠차'처럼 보인다는 이

유로 해치백보다는 노치백 차량을 선호해왔다. 해치백 모델의 판매 비중은 3~4년 전까지만 해도 소형차만 10% 남짓한 수준이었으며, 중형 이상의 차급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은 해치백의 불모지'라는 얘기도 나돌았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뒷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은 해치백 소형차가 주로 판매되고 있고, 중형차도 해치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 현지 전용모델인 현대차의 i10과 i20, 기아차의 씨드와 벤가 등도 모두 해치백 형태로 생산·판매된다. 또 기아차 프라이드의 유럽 판매분은 전량 해치백 모델이기도 하다. 한국의 소형차 시장 트렌드도 수년 전부터 점차 유럽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용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해치백 소형차의 디자인 진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토담
광산구 비아소방서와 흥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홍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뺏닭, 오리 장어탕
☎062)401-5253

일등모바일
동구 금남로 2가 7-4 (구)동구청 1층 핸드폰·악세사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

송하한정식
동구 금남로 2가 10번지 청국장, 가마솥육개장 한정식, 백반전문
☎062)225-9278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 (중앙로 196번길 15-16)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 카톨릭센터쪽 30M 이전 확장개업
대표 임택택 ☎010-2681-3113

보성존제산일일사포교원
북구 두암동 561-5출플러스건너편 광주은행건물 4층 인쇄, 풍수, 사주연구소 연구원
원장 이성호 ☎010-8278-0030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중환 ☎062)232-4784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유상실업) 부대찌개, 철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그린이용원
북구 양산동 오리공원이 뒤
대표 성욱희 ☎010-3225-2735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똥이레
동구 대외동 10-1 바다장어, 찜닭, 불장어, 사브사브, 돌관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고전방
동구 금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광주척추교정원
광주 동구 계림동 마시골 건너편 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디스크 협착증, 사지관절, 손발저림, 전신경락
☎010-8827-7799

아워홈테크
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ik제휴점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생크대 불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

27번가
동구 중앙로 196번길 27 (구)동구청 뒤 혼연바베큐, 기계맥주 조용히 즐길 수 있는 쉼터
☎062)223-2727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직영, 개명, 사주, 신수 공학,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